

새 '틀' 시험 가동... "공·수 최적 조합 찾아라"

막 오른 시범경기...KIA, 관전포인트 5가지

조상우·전상현·정해영에 새 자원 가세, 불펜 필승조 재편
리드오프 윤곽...데일 주축·백업 활용 내야진 구상 시험대
카스트로 적응 여부 관건·불붙은 5선발 경쟁 '마지막 퍼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6시즌 개막을 앞두고 시범경기에 돌입한다. 스포츠 링캠프에서 다듬은 전력과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마지막 실전 무대다.

KIA는 오는 28일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12일 SSG와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총 12경기의 시범 경기를 치른다. 기간은 길지 않지만, 시즌 판도를 가늠할 몇 가지 단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번 시범경기에서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불펜 필승조 재편이다. 지난해 KIA의 성적 하락 원인으로 불펜진 일부의 부진을 꼽을 수 있다. 구단은 오프시즌 동안 조상우, 이준영과 재계약했고 김범수와 홍건희 등을 영입하며 불펜 전력을 보강했다.

기존 필승조였던 조상우, 전상현, 정해영에 새로운 자원이 더해지면서 계투진 짜임새가 한층 탄탄해졌다. 캠프 연습경기에서도 지난해보다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필승조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여지가 커졌다. 완전한 재편이 이뤄질지, 일부 변화에 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경기 후반을 책임질 뒀음이 어떤 형태로 자리 잡느냐는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리드오프가 누구냐다.

박찬호의 이적으로 '1번 타자 찾기'는 캠프 기간에도 실패가 이어졌다.

시범경기 기간 동안 KIA 벤치는 상위 타선의 조합을 실험할 것으로 보인다.

출루형 타자를 세울지, 장타력을 앞세운 공격적인 배치를 택할지도 관심사다. 이 선택에 따라 타선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연습경기에선 김호령, 데일, 박정우 등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1번 타자로 기용됐다.

세 번째는 새 외국인 타자 해럴드 카스트로의 적응 여부다.

지난해 KIA 타선은 찬스에서 결정력 부족으로 공격의 응집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위즈덤과 결별하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선택했다.

카스트로는 캠프에서 일정 수준의 가능성을 보였다. 한화전을 제외한 모든 연습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며 콘택트 능력을 입증했다. 첫 경기 첫 타석에서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장타력도 확인했다. 최형우의 이적이 있는 상황에서 카스트로의 적응 속도는 KIA 공격의 무게감을 좌우



김호령

할 변수다. 네 번째는 유격수 박찬호 공백 이후 내야 정비다.

KIA는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제리드 데일을 중심으로 내야 구성을 다시 짜고 있다. 수비 안정성과 전술 완성도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김규성과 박민, 정현창 등 백업 자원들의 활용도 역시 시범경기에서 점검 대상이다. 여기에 출장 관리가 필요한 김선빈을 받칠 2루 자원과 1루 오선수의 역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마지막은 5선발 경쟁이다.



제리드 데일

KIA는 네일과 올리, 이의리, 양현종으로 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의 큰 틀을 잡아둔 상태다. 지난해 선발진의 한 축이었던 김도현은 부상으로 재할 중이다. 복귀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5선발 후보로는 황동하, 김태형, 홍민규, 이태양 등이 거론된다.

마지막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는 시범경기 결과에 따라 점차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벤치의 판단은 개막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KIA는 시범경기 기간 동안 주요 포지션을 확정하는 한편, 백업 자원들의 역할도 하나씩 정리할 예정이다.



해럴드 카스트로

(KIA 타이거즈 제공)

시범경기 성적 자체보다 전력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

3년 차 시즌을 맞는 이범호 감독이 어떤 팀 색깔을 보여줄지 자연스레 관심이 모인다.

한편 WBC 한국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김도영은 대회 일정상 시범경기 초반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8강전을 치르며 4강과 결승에 진출할 경우 16일과 18일까지 일정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12-15일 SSG, KT와의 홈 경기를 포함한 시범경기 초반 일정에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주홍철 기자

전남도청 정상희·김운진·박빛나...순천시청 이하늘·류태우, 2026 소프트테니스 '태극마크'

“마지막 관문 뚫고 AG行 티켓 잡아라”

전남도청과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선수 5명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전남도체육회는 11일 “전남도청 정상희(개인단식), 김운진·박빛나(개인복식)와 순천시청 이하늘·류태우(개인복식)가 지난 7일 순천 팔마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년도 소프트 테니스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6장 토너먼트로 시작해 패한 선수에게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패자부활전(더블 엘리мина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상희는 여자 개인단식에서 김운진(전남도청)과 황정미(농협은행)를 차례로 꺾고 승자 조 결승에 진출했으나 이수진(육천군청)에 패하며 패자조로 밀려났고 이어진 치열한 경쟁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하며 국가대표로 뽑혔다.

여자 개인복식에 출전한 김운진·박빛나 조도 방수은·김민주(문경시청), 황정미·임진아

(농협은행), 지다영·노은지(안성시청)를 연파하고 승자 조 결승에 올랐으나 엄예진·김한설(문경시청 iM뱅크)에 패해 패자조에 합류한 끝에 최종 3위를 기록하며 여자 개인복식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하늘·류태우 조는 남자 개인복식 16강에서 팀 동료인 추문수·윤지환을 꺾은 데 이어 8강과 4강에서도 연승을 거두며 승자 조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진 최종전에서 패한 이하늘·류태우 조는 패자조를 통해 다시 결승 무대에 오르는 저력을 보이며 최종 준우승(2위)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선발전에서 선발된 남·여 10명씩 총 20명의 국가대표들은 오는 4월 중 인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인 강화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자체 평가전 등을 거쳐 남·여 각각 5명



2026 소프트테니스 남자 개인복식 국가대표에 승선한 순천시청 이하늘과 류태우. <전남도체육회 제공>

씩 최종 엔트리가 확정되며, 이들은 오는 9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14일 전북戰 “생맥주 쏜다”

무료시음회·굿즈 경품 추첨 등 팬들과 함께하는 체험 이벤트 ‘풍성’



프로축구 광주FC가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전과 하나은행 K리그 2026 3라운드 홈경기에서 팬들을 대상으로 ‘테라 생맥주 무료 시음회’를 진행한다.

이번 시음회는 선착순 1천명을 대상으로 테라 생맥주 250ml를 무료로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팬들은 맥주 시음과 함께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톨렛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측 광장에서는 선수단 팬 사인회가 열려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AR 사격 체험, 1대1 축구 매치업 ‘배틀

필드’, 스피드건, 닥트 게임 등 다양한 팬 참여형 이벤트가 운영되며 성공 참가자에게는 경품 응모권이 제공된다.

장외 행사로는 광주FC 대학생 마케터 엘리트 4기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준비한 ‘3·14를 맞춰라’ 이벤트를 통해 참여한 팬들에게 사탕을 증정할 예정이다.

경기 전에는 골키퍼 김경민의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 기념 행사가 진행되며, 하프타임에는 공룡 에어슈트를 착용하고 달리기 레이스를 펼치는 이색 이벤트 ‘쥬라기 월드컵’이 진행돼 유쾌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자에게는 경기 티켓 및 홈경기 OMBC(Official Match Ball Carrier) 참여 기회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된다. /박희중 기자

김시우, 플레이어 챔피언십 ‘우승후보 1순위’

골프채널, 1-123위 파워랭킹 공개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후보 1순위로 김시우를 지목했다.

골프채널은 11일 올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선수 123명의 파워랭킹을 1위부터 123위까지 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시우는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 2위인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모두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골프채널은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김시우는 이후로는 ‘톱10’에 두 번밖에 들지 못했다”면서도 “올해 초반 성적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김시우는 올해 PGA 투어 어프로치샷 근접도(proximity) 1위에 올라 있고, 어프로치샷으로 획득한 타수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특급 대회로 김시우가 2017년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당시 21세)을 세웠다.



김시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해마다 같은 코스에서 대회가 열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김시우는 이후 2021년 9월, 2024년 6월 성적을 냈다.

올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12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데라비치의 TPC 소그래스 더플레이어스 스타디움코스에서 총상금 2천500만달러 규모로 열린다.

2023년과 2024년 셰플러, 지난해 매길로이가 우승했으며 올해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외에 임성재, 김성현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등록스포츠클럽 전환 박차...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점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선진화된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장애인 생활환경 조성해 나간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1일 전남체육회관에서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올해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등록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의 동호인단체 성격의 생활체육 클럽들을 ‘스포츠클럽법’에 의해 법인적 지위를 갖춘 등록스포츠클럽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선진형

2026 전남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본격 시동’...‘공모 설명회’ 성료



2026년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설명회

스포츠클럽 기반을 구축해 단순한 동호회 활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도 비 예산이 전년 대비 53% 증액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예산 확보로 더 많은 시·군과 종목별 단체가 혜택을 받게 돼 지역 내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도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중 기자